

現代 海洋科學技術을 集約展示

— 제 4 차 國際 海洋博覽會 參觀記 —

송우영 · 이창복 · 장순근
(海洋開發研究所 研究員)

- ◇…… 이 參觀記는 海洋開發研究所의 派佛訓練生 송우영, 이창……◇
- ◇……복, 장순근 研究員이 프랑스 Bordeaux市에서 개최된 제4……◇
- ◇……차 Ocean Expo를 현지 參觀後 작성한 것이다. (편집자주)……◇

○ 南北 協力문제를 강조 ○

제 4 차 國際 海洋博覽會(Ocean EXPO; 4 th International Exhibition on the Exploitation of the Oceans; Shipbuilding, Offshore Techniques, Harbours, Fishing, Pollution Control) 와 제 1 차 開發途上國이 海洋, 河川, 淡水湖 및 汽水湖에 관한 활동, 합동 展示 및 發表會(Oceanotropiques; 1 st World Exhibition & Symposium on Achievements, Activities & Project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Mostly Concerned with seas, rivers, lakes & lagoons) 가 1980년 3월 4일에서 8일까지 Bordeaux 港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EXPO의 開會式에는 Senegal의 상고르대통령, 샤방 델마스 Bordeaux市長겸 프랑스 国会議長, 프랑스 교통부장관 및 Africa 여러나라 장관과 이락의 장관등이 참석하여 南北協力 즉 開發途上國과 先進國間의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상고르대통령은 3각 協力關係(先進國 기술+Africa 노동력 및 지하자원+중동석유)를 주장하였다.

참가국가는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모리타니, 모나코, 르완다, 세네갈, 싱가포르, 타일랜드, 튀니지, 차드, 페루, 요르단, 가봉, 기아나, 모로코, 아부다비 등 프랑스와 신생Africa 국가, 아랍國家를 비롯하여 東南아시아 국가들이 참가, 활동하였다. 産業界에서는 프랑스·아랍상공회의소, 구주공동시장 협력국가·서독·네델란드·日本 상사가 참가하였으며 소련, 폴란드; 아이보리코스트, 통일아랍공화국,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마다가스칼, 말레이시아의 활동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으나 美國 및 英國은 참석하지 않았다.

프랑스에서는 CNEXO, CNRS, EDF(프랑스 전기), CEA(원자력연구소) 및 ORSTOM(프랑스 해외과학 기술 연구기관) 등 유명연구기관들의 소관업무 설명 및 출판물 전시 등과 아울러 시추회사, 탐사장비회사, 流出된 원유제거전문 Antipollution 회사들의 업무설명 및 장비 전시가 있었으며 開發途上國들은 주로 自國의 현황설명과 生産品(건어물, 통조림等) 전시에

관광선전을 곁들여 주목을 받았다.

○ASEAN 국가들 별도의 회의가져○

3월 4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 회의 첫날은 開會式에 이어 아프리카-카리브海 沿岸國들의 海運을 중심으로 한 회의, 5일은 아랍 여러나라의 문제와 공해방지회의, 6일은 라틴 아메리카 제국의 문제들과 항만관리 및 개발을 주제로 한 회의, 7일은 동남아 국가들의 문제점과 200해리 경계 해역 및 프랑스의 조선사업 분야 등을 주제로, 8일에는 국제해양협력을 주제로 각각 회의가 진행되었다.

각 主題別 회의마다 사전등록제 실시와 고액의 참가비 등으로 모든 회의의 참가는 어려웠으나 우리나라와 관계가 깊은 동남아 제국의 해양환경 및 자원개발에 관한 회의에는 참가, 활동하였다. 그러나 연사는 예정되었던 필리핀 연사가 불참하는 관계로 인도네시아인 두명과 프랑스 제독등 3명이 일반적 개황 설명을 하였으며 이 중 ASEAN 국가들의 석유생산 중 48%가 현재 해저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그 부존 지역과 부존층이 제 3기층을 중심으로 형성되기는 하



지만, locality와 퇴적기원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점, 그리고 매년 평균 50~100개의 시추가 遂行된다는 점이 관심을 끌었다.

○프랑스, ASEAN 진출에 적극적○

이번 회의에서 상당히 흥미있는 주제의 하나로서는 프랑스 해군의 Roux 제독의 “海洋分野에서 ASEAN 국가들이 필요한것”이라는 주제로, 그는 선진국으로서의 프랑스에 이들 ASEAN 국가들이 어떠한 분야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프랑스가 참여할 수 있는 세목을 자세한 통계 숫자와 함께 열거하고 이를 크게 1) 造船分野 2) 港灣建設 3) 水産(資源開發 및 保存) 4) 공해방지(分析機器, 技術, 資本等)의 4개分野로 구분하고 현재 이들 각분야의 各國실정과 현황을 분석한후 이들 분야에 프랑스 企業들이 적극 참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Roux 제독의 통계분석자료는 대상분야가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국내관련기관 및 기업의 관심이 추구된다.

또한 해양오염과 수산물 양식에 관한 CNE-XO의 해양생물 양식전문가의 발표와 항만건설에 따르는 자연환경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흥미를 끌었으며 특히 자연환경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Bordeaux 근처의 Verdon港을 例로 들어 설명한 것으로 新港灣建設을 추진중인 우리나라로서는 충분히 감안되어야할 문제들이었다. 그의 原油 流出時 사용될 Antipollution 장비를 위한 실험의 장단점을 비교한 CNEXO전문가의 의견과, 프랑스 國立 海水性質觀測網에 관한 보고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자료로서 앞으로 이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것이 기대되고 있다.

끝으로 Bordeaux市에서 3년마다 개최되는 Ocean EXPO는 先進國의 개발방향 및 技術現況과, 後進國(특히 中東產油國과 Africa 國家 등) 진출에 필요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키 위한 國家의 次元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